

2022-06-13 (2022-22호)

6월 13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인플레이 공포 속 열리는 연준 회의... 다시 1,300원 가나?

서울, 6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인플레이션 공포가 증폭된 상황에서 열리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해 이번 주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 몸살을 제대로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예상되는 달러/원 거래 범위는 1,260-1,290원이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의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충격으로 물가 정점론은 급격히 퇴색한 동시에 통화 긴축 가속과 경기침체 우려는 한층 더 확산됐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빅 스텝'인 50bp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인 75bp 인상의 소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7월 75bp 인상 가능성도 다시 저울질되고 있다.

연준 이벤트 불확실성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50bp 인상이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점도표와 경기 전망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주중 영란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고강도 긴축 여건 속에서 고물가·저성장 테마가 재차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높아 원화는 다시 약세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달 초 중국 지역 봉쇄 완화에 잠깐 안도하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지역 재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국 발 불확실성이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어 보인다.

연준 이벤트에다 중국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달러/원 환율은 언제든지 1,300원 목전까지 오를 수 있다. 물론 정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연일 외치는 정부 의지를 고려할 때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따라 원화의 가파른 약세가 저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된다면 원화만 소나기를 피할 묘수는 없어 보인다.

미국 5월 생산자물가와 소매판매, 중국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핵심 지표 발표도 예정돼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5월 고용동향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13일(월)

- ⊙ 금융감독원 : 2022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관세청 : 6.1~10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경기순환상 위치와 공급제약 요인' (BOK이슈노트 2022-20) (12:00)

6월14일(화)

- ⊙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종료후)
- ⊙ 금융감독원 : 원장 임원회의 (10:00)
- ⊙ KDI : 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12:00)
- ⊙ 한국은행 :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21) (12:00)
- ⊙ 통계청 : 2021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2:00)
- ⊙ 기획재정부 :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14:00)
- ⊙ 한국은행 : 2022년 10차(5.26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6월15일(수)

- ⊙ 통계청 : 2022년 5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 2022년 5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관세청 :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09:00)
- ⊙ 한국은행 : 부총재 이데일리 전략포럼 (10:00)
- ⊙ 한국은행 : 2022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12:00)

6월16일(목)

- ⊙ 한국은행 : 2022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 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 기획재정부 :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6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 2022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12:00)
- ⊙ 금융감독원 : '22.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6월17일(금)

- ⊙ 기획재정부 : 1차관 세계경제연구원 축사 (08:30)
-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 (09:30)
- ⊙ 기획재정부 :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주재) (14:3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6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5월		Percent	20.50%
6월13일	08:50	일본	기업경기실사지수	2분기		Percent	-7.6%
6월14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4월		Percent	-1.3%
6월14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5월		Index	93.20
6월14일	21:30	미국	PPI 최종수요 MM	5월	0.8%	Percent	0.5%
6월15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6월		Index (diffusion)	5
6월15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서비스업지수	6월		Index (diffusion)	13
6월15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4월		Percent	7.1%
6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5월		Percent	6.8%
6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5월		Percent	-2.9%
6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5월		Percent	-11.1%
6월15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4월	0.5%	Percent	-1.8%
6월15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6월6일 주간		Index	288.4
6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6월		Index	-11.60
6월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5월	1.1%	Percent	0.0%
6월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5월		Percent	0.6%
6월15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5월	0.2%	Percent	0.9%
6월15일	23:00	미국	기업재고 MM	4월		Percent	2.0%
6월15일	23:00	미국	소매재고 수정치	4월		Percent	1.7%
6월15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Index	69
6월16일	08:50	일본	수출	5월		Percent	12.5%
6월16일	08:50	일본	수입	5월		Percent	28.2%
6월16일	08:50	일본	무역수지	5월		JPY	-839.2B
6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5월		Percent	0.7%
6월16일	21:30	미국	건축허가	5월		Number of	1.823M
6월16일	21:30	미국	주택착공	5월	1.738M	Number of	1.724M
6월1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6일 주간		Person	229k
6월16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6월		Index	2.6
6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5월	0.8%	Percent	1.1%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13일(월)

-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미국공동채재투자연합(NCRC) 회의 참석 (14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호주

6월14일(화)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5일까지)

6월15일(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런던대 경제학과 주최 행사 참석 (16일 오전 1시)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16일 오전 3시) ·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6일 오전 3시30분)

6월16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그룹 회의 참석
- ⊙ 영란은행 금리 발표 ·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오후 8시)
- ⊙ BOJ 통화정책회의 (17일까지)

6월17일(금)

- ⊙ BOJ 금리발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달러의 국제적 역할' 컨퍼런스서 환영사 (오후 9시45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연준 50bp 금리 인상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는 14~1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지난 3월 이후 이미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데 얼마나 자신감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서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드러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15일 발표될 미국의 5월 소매판매 지표도 주목된다. 애널리스트들은 5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일본은행 완화정책 유지할 듯

일본은행(BOJ)은 오는 16~17일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 세계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가운데 BOJ에 대한 정책 변경 압박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월21일 이후 처음으로 BOJ의 정책 밴드 상단인 0.25%까지 상승했다.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정책 차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엔화다. 달러/엔은 최근 20년 만의 최고

인 134.55엔까지 올랐다.

BOJ와 재무성(MOF), 금융청(FSA)은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가파른 엔 절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영국의 잔인한 여름

영국은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과 파업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최근 OECD는 영국 경제가 내년 제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G20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취약한 성장률이다.

이런 가운데 영란은행은 오는 16일 정책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이후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그에 앞서 13일과 14일 각각 발표될 4월 GDP와 고용 지표도 관심거리다.

영국의 지난 1분기 실업률은 48년 만의 최저치인 3.7%를 기록했으나 인플레이션 조정 후 기본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 2013년 이후 최대폭 감소한 바 있다.

### ◎ 스위스 중앙은행 정책회의

스위스 중앙은행은 오는 16일 정책회의를 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과 7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 전망은 일부 정책위원들의 도비시한 스탠스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스위스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5월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근 14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씨티은행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16일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연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프랑스 총선

프랑스는 12일 하원 의원을 선출하며 첫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9일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289석을 차지해야 한다.

최근 Ifop 연구소가 LCI 방송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50~29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세계 외환보유고 다각화가 달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

※ 제이미 맥기버 로이터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랜드, 플로리다, 6월09일 (로이터) -

13조 달러 규모인 세계 외환보유고의 재구성은 달러의 선두 자리를 위협하기보다는 유로의 2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을 부추길 뿐이다.

이는 이번 주 달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브루킹스연구소 토론에 참석한 세계적인 외환보유고 전문가 배

리 아이첸그린과 에스워 프라사드의 견해다.

토론 패널들은 결제통화나 교환 수단으로서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세계적인 기술, 무역, 지정학적 구조 변화가 달러의 외환보유고 지위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즉, 안전하고 유동적인 곳에 보유자금을 넣어두고 꾸준하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익도 얻을 원하는 보유하고 매니저들에게 미국 자본시장을 대체할 만한 곳이 아직 없다는 얘기다.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달러의 역할은 여전히 지배적인 한편, 2위 자리를 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첸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토론이 끝난 뒤 로이터에 "내 생각과 똑같다"고 말하고, 달러의 지배력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약화되겠지만 "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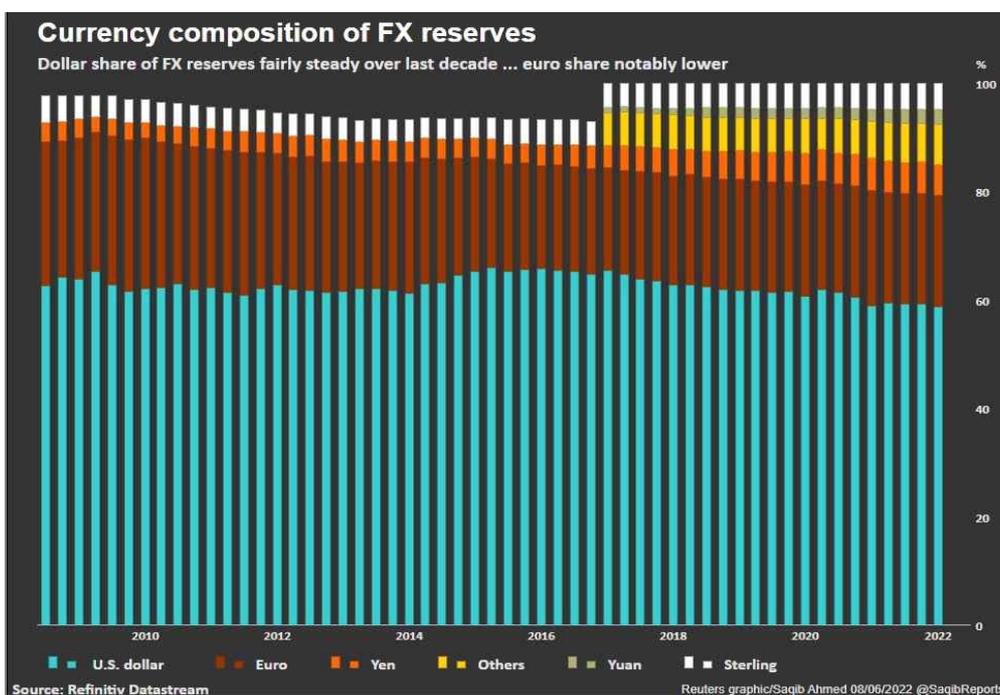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외환보유고는 12조9,000억 달러였다. 통화 구성비가 공개된 12조달러 가운데 달러 비중은 58.8%로 20년 전의 약 70%에서 줄어든 상태다. 반면 유로 비중은 20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는 20% 수준이다.

#### ◆ 10%의 비전통적 통화들

아이첸그린 교수는 지난 3월 "달러 지배력의 은밀한 잠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난 20년간 달러 비중 축소분의 4분의 1이 위안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나머지 4분의 3은 원화와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등 '비전통적' 보유통화가 가져갔다.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통화는 이제 달러보다 유로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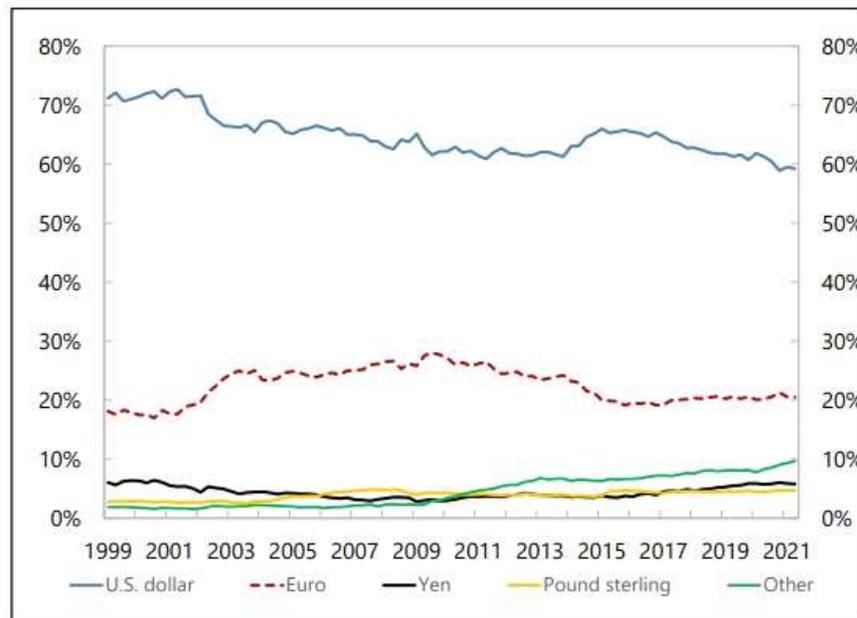
10년 전 달러 비중은 약 60%로, 지난해 수준과 거의 같았던 반면 유로의 비중은 유로 위기와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및 채권매입 부양책 실시 전인 2009년 최고 28%에 달했다.



지난해 위안을 포함한 '비전통적' 통화들의 비중은 전체 보유고의 약 10%, 1조2,000억 달러였는데, 대부분 유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지난 10년간 축적된 것이다.

아이첸그린 교수는 이들 통화의 비중 확대가 "지능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 외의 통화들은 리스크-보상 관점에서 매력적이고, 다른 통화와 쉽게 거래가 가능하며 중앙은행들과 연방준비제도 사이에 달러 스와프라인이 개설돼있다는 설명이다.

Figure 1. Currency Composition of Global Foreign Exchange Reserves 1999–2021 (in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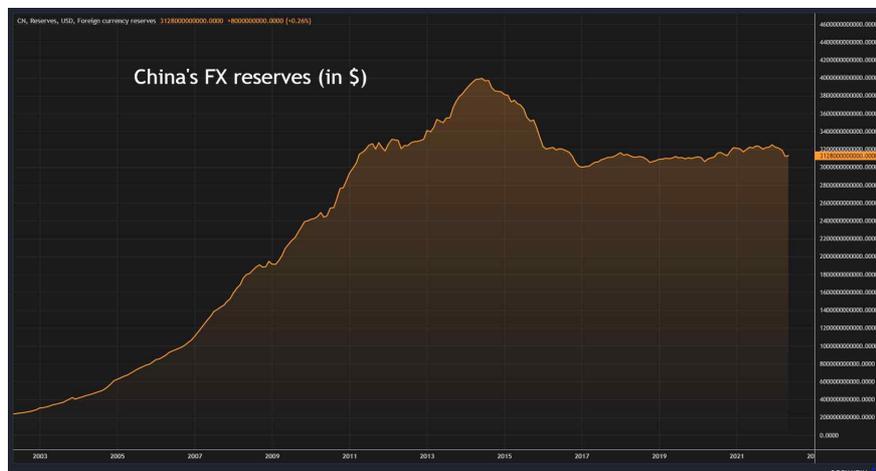


Sources: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COFER).  
 Note: The "other" category contains the Australian dollar, the Canadian dollar, the Chinese renminbi, the Swiss franc and other currencies not separately identified in the COFER survey. China became a COFER reporter between 2015 and 2018.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 보유고 동결, 각국이 위안 보유액 확대를 꺼릴만한 이유, 또 중국이 자금 유입이 가져올 위안 절상을 원치 않을 이유 등도 거론됐다.

중국이 전체의 60%가 달러표시 자산인 것으로 추정되는 3조2,000달러 규모의 보유고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골드만삭스 자흐 팬들은 중국과 미국이 "느린 경제적 이혼"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보유고에 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이 달러 보유액의 극히 일부를 유로나 엔, 스위스프랑으로 다각화하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은 이들 통화의 절상을 초래할 만큼 클 것이다.

유로존, 일본, 스위스는 미국보다 더 개방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은 자국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표시 보유하고 매수를 원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다각화 효과를 상쇄하고 달러 보유고가 어쨌든 증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유하고 자금이 달러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프라사드 교수는 "수천억, 수조달러에 달하는 보유고를 비축해둘 곳을 찾는다면 달리 갈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0일 증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68.9	-2.1%	-6.3%	-8.6%	유로	1.0517	-1.9%	-7.5%	-6.9%
100엔 대비	951.8	0.5%	8.5%	+1.8%	엔	134.44	-2.6%	-14.4%	-10.3%
유로 대비	1,345.7	-0.3%	0.5%	-1.9%	위안	6.7081	-0.7%	-5.3%	+2.7%
위안 대비	190.72	-1.5%	-1.9%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392.79	-4.6%	-13.6%	+18.7%
코스피	2,595.87	-2.8%	-12.8%	+3.6%	나스닥	11,340.02	-5.6%	-27.5%	+21.4%
코스닥	869.86	-2.4%	-15.9%	+6.8%	S&P500	3,900.86	-5.1%	-18.2%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49.95	-0.7%	-12.7%	-4.9%
국고채 3Y	3.275%	15.4bp	147.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452%	8.7bp	144.1bp	+67.6bp	미국채 2Y	3.070%	41.0bp	234.0bp	+61.0bp
국고채 10Y	3.495%	9.0bp	124.5bp	+53.7bp	미국채 10Y	3.160%	22.0bp	165.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20.47	0.2%	59.7%	+55.8%	한국 5Y	44.7bp	-0.8bp	22.6bp	-0.7bp
금(현물)	1,871.46	1.1%	2.3%	-3.6%	일본 5Y	20.1bp	-0.1bp	2.5bp	+2.1bp
TR상품지수	3,758.06	1.5%	12.5%	+24.6%	중국 5Y	70.2bp	-2.0bp	29.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